



3면  
"영호남 하나로 끌어안고  
2년 임기 완수 당대표 될 것"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7월 9일 목요일 (음 5월 19일) 제2574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는 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대호 안양시장 등 11개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 “신규일자리 1만개 창출”

전북도 고용안정사업단 출범... 5년간 1000억원 투입

향후 5년간 1,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기 위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주도할 전북도 고용안정사업단이 8일 공식 출범했다.  
고용노동부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인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총괄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이다.  
이에따라 코로나19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산업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유휴인력의 이·전직을 촉진함으로써 실업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과 이날 오후 전주 효자동 소재 총괄사업단 사무실에서 전북도 고용안정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 정책과 고용안정 선제 대응 관련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는 3개 시군의 고용안정 일자리 센터를 총괄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안정사업단이 주도하고 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하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상용차 클러스터 중심의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 ▲고용성장산업인 농식품산업을 고도화 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 ▲신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창업지원, 인력양성을 통해 신규일자를 창출 ▲고용안정 거버넌스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1,000억 원을 투자, 안정적, 확실한 1만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코로나19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전북경제의 청사진을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이어 전북도는 이날 고용안정사업단 개소식에 이어 참립 운영위원회도 열었다. 운영위원회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의사결정기구로 전북도 우범기 정부부지사 위원장으로 익산부시장, 김제부시장, 완주부군수, 고용부 전주지청장, 익산지청장, 산업계·노동계 대표, 연구기관, 지역 대학 및 수행기관장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해야”

전국대도시시장협, '지방자치 발전' 공감대 형성  
중앙부처 등 설득·당위성 피력 공동 대응 '한 뜻'

전주시를 비롯해 인구 50만 이상인 전국 대도시들이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확대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는 8일 전주 팔복 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대호 안양시장 등 11개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차단체장의 고유권한 존중 △관공공 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지역우수업체 도입 등 14건의 안건들도 다뤘다. 특히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자치협회를 통해 추진해온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또한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 현황과 현 대도시 특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특례사업 발굴 등 특례 확대 필요성에 대해 중점 논의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한 부여 △등락면허제 시세 개선 환경개선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귀속주체 개선 등 재정이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지방방위구원 설립기준 완화 등이 특례사업으로 제안됐다.  
회원도시들은 용역 결과물과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회 및 중앙부처에 특례 확대에 필요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향후 협의회를 이끌어갈 제18대 임원진을 선출했다. 회장은 윤화섭 안산시 시장 부회장은 박상돈 천안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각각 맡게 됐다. 이외에도 안양시의 안양예술공원 이미지 매칭사업, 제1회 용인시 30초 영화제 공모전, 포항시 해수욕장 개장의 건 등 회원도시별 특색 있는 사업과 주요 행사에 대한 홍보의 시간도 이어졌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코로나 정국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내는 미중물 역할을 특별히 해내고 있다”면서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오고 있듯이 대도시협의회 회원도시들과 협력해 제도개혁을 통한 자치분권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협의회로 수원과 성남 등 경기 지역 9개 시와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6개시를 포함한 전국 15개 대도시로 구성되었으며, 대도시 상호간 교류협력과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03년 4월 설립됐다.  
/김윤상기자

### 조지훈 전북경진위원장,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촉

전북도경제총합진흥원(이하 경진원) 조지훈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보좌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8일 밝혔다. 자치분권 위원 중 전라북도 인사는 조지훈 원장이 유일하다.  
조지훈 원장에 대한 위촉 위촉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해 확정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이다.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의



지방자치 정책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자치분권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고 7월 7일 제2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김윤상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송주빌딩5F